민주 시도지사 예비후보 내주 접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는 29일까지

시민배심원제 논란 진통 불보듯

민주당이 내주 '뉴 민주당' 선언을 통해 수권 정당의 위상을 제고하고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지방선거 체제 전환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논란과 비주류 측의 반발 등이 맞물리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8~22일까지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1차 자격 신청을, 25~29일까지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1차 자격 신청을 받는다.

민주당은 1차 접수 기간 이후에도 공직후보자 공모접수기간 전까지 예비후보자 신청을 수시로 받는다는 계획이다.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의 경우, 중앙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우, 시도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에서 심사를 한다.

민주당은 또한, 다음 주 '뉴 민주당' 선언을 통해 대안 정당 및 수권 정당으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지방공약 개발을 위해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뉴 민주당' 선언은 경제, 복지,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 대한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최종 포괄적인 선언문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시민공천 배심원제 등의 도입을 위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잇달아 개최, 당헌 및 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짓고 시행 규칙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선거에서의 야권 선거 연대를 위해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선거연대 전략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야권 연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야권 원탁회의 후속 실무회의를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27일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수시로 당 지도부와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를 마련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권 잡아라" 계파갈등 표면화

민주 비주류 "지방선거전 지도부 교체" 주장

정동영 복당 맞물려 당권 주도권 가열 예고

비주류가 총 공세에 나서면서 민주당이 내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예산 투쟁과정에서 정세균 대표 공격을 자제해 왔던 민주당 비주류가 지도부 교체를 선언하고 나선 것. 이들은 "당이 이대로 가서 안 된다"는 문제 의식 속에 6·2 지방선거 전에 지도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비주류 초·재선 모임인 국민모임이 14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민주당,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에서 쏟아졌다.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상대책위(비대위)로 전환, 새로운 얼굴을 당 전면에 내세워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며 "당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가 행동하는 양심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행동하는 욕심에 가득 차있다"고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 지도부는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 직무를 유기했다"며, 문학진 의원도 "정 대표가 당내 사조직을 운영하며 사당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민주당, 이대론 안 된다'는 주제 발표문에서 "현재의 패권주의적 정세균 체제를 전제로 한 민주대연합은 민주대연합이 아니라 민주당을 중심으로 다른 세력을 들러리 세우는 '민주당연합', 아니 정세균의 대권욕에 진보개혁세력을 들러리 세우는 '정세균 대권연합'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들어도 별 할 말이 없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당 혁신·통합위가 마련한 전국 지역위원장 간담회에서도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문제를 놓고 국민모임의 장세환 의원은 "혁신·통합위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중앙으로 넘겨 정 대표의 공천권을 강화하려는 당헌·당규 개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내재돼온 계파간 긴장관계가 표면화되면서 정동영 의원 복당 문제와 맞물려 지방선거 공천과 차기 당권경쟁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가열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직 사퇴, 60일전→90일전으로

밤 10시 이후 전화여론조사 못해

■ 개정 공직선거법 21일 공포… 뭐가 달라졌나

지난해 연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오는 21일 공포·적용될 예정이어서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나 유권자 모두 개정 선거법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일 공포될 개정 공직선거법은 기존 과도한 규제에서 탈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폭을 넓혀준 반면 그만큼 법적 책임성도 강화한 것이 큰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공직자의 사퇴시한을 60일에서 90일로 앞당겼으며,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 허용을 확대했다.

또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 때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탁금 제도가 신설됐고, 전과기록·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아예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내용이 강화됐다.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대상자가 기존에 비해 확대됐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허용됐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전송 행위는 5회까지로 제한된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인원도 후보자를 비롯한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으로 2~5명으로 늘어났으며,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늦은 밤까지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오디오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야간 연설 제한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에 사전 여론조사를 신고하는 여론조사 사전신고제가 신설됐다. 하지만, 신고내용과 다를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여론조사도 금지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무엇보다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아 특정 성씨가 유리하던 기초의원 선거 기호 부여를 정당 추천과 선관위 추첨으로 바뀌어 논란의 소지를 줄였다. 또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예산낭비와 의정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여성 출신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 여성 추천제가 도입됐으며, 출마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등 향응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완화됐다. 현행법은 상한액 5천만 원을 기준으로 50배를 일괄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 3천만 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공직선거법은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고,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제출의 강제 등 유권자의 알권리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자유가 보다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오후 도 선관위 간부 및 시·군 선관위 사무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관리방침과 2010년 주요업무계획의 시달, 상반기 중에 치러지는 각종 조합장선거의 단속방안 등 선거 전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시도지사 입지자들 "호남위기 대책위 만들자"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들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등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범 시·도민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 금호아시아나그룹 워크아웃 등으로 지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시·도의 민간, 경제, 행정을 비롯한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는 범 시·도민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이날 최종만 광주시 행정부시장에 범 시·도민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며, 양형일 전 국회의원도 지역의 산발적인 반대 목소리가 아닌 범 야권·시민단체·경제계·학계 등의 범시민차원의 협의 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군수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이란 공적 자리를 활용해 벌이고 있는 주승용 의원의 당원 간담회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며 주 의원의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서갑원 "순천정원박람회 연기해야"

○…민주당 서갑원 의원(순천)은 14일 순천지역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순천시 재정 여건으로는 순천정원박람회를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려워 개최시기를 2015년 이후로 연기하고, 사업규모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석형 출판기념회 1만여명 성황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14일 오후 4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서영훈 전 새천년민주당 총재 등 전·현직 민주당 당직자, 시장 및 군수 등 지자체장을 비롯한 지역인사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우 고두심과 코미디언 이상용씨의 사회로 '세상을 바꾸는 나비효과(21세기북스刊)'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광주시민정책개발원 창립대회

○…민간 싱크탱크인 광주시민정책개발원(약칭 '시정개발원')이 14일 오후 서구 메리어트웨딩홀에서 창립대회를 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시정개발원에는 명예고문인 이용섭(사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무등 김국웅 회장 등 40여 명이 고문자격으로 참여했으며, 광주·전남지역 14개 대학의 교수 및 직능 직역별 전문가 300여 명이 정책자문위원으로 선임돼 정책대안 등을 발굴하게 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hagija@

합격을 원한다면 주소창에 "한빛고시학원"만 쳐보세요
가장 많은 수강생! 최다 합격자 배출! 최고의 시설! 최강의 강사진! 압도적 1위 한빛!
7급 9급 공무원 학원
2월1일 시작반 현재 수강예약 접수중
사대생 시험패턴 변화바람
외길십다. 독같은 공무원 대우, 채용인원과 시험기회가 많다.
임용고시 보다 교육행정직
>>> 합격하고 싶다면 한빛고시학원을 통하라!! 학원 선택이 합격을 결정한다!! <<<
시대생을 위한 교육행정직 합격특강
9급 문제풀이
소방직
마감유의 현재수강접수중
한빛고시학원
광주 북구청앞
(062) 234-0234